ISSN 2288-0518

DMZ

2014 / 12 vol.05

논 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공간적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정해용·김창환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가능성 ····· 이홍택·정성훈

유라시안 신(新) 실크로드 개발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 김창환

강원대학교
DMZ help DMZ HELP 센터

제5권

D M Z

2014 / 12 vol.05

목 차

논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공간적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 **정해용·김창환·** …… 1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가능성 …… **이홍택·정성훈** …· 13
유라시안 신(新) 실크로드 개발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 **김창환** …· 23

DMZ help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공간적 입지선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Location Selection of Korea DMZ World Eco-Peace Park

정해용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정보체계협동과정 박사과정)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Jeong, Hae-Yong (Ph. D course, Dept. of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Kangwon Nat'l Univ.)

KIM, Chang-Hwa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 약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의 공동참여로 구축하는 세계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이다. 본 연구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최적지 도출을 위해 8가지의 평가인자를 선정하여 분석하였고, 1~5순위까지의 입지 순위를 도출하여 파주시, 철원군을 최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키워드 : 비무장지대(DMZ),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지리정보시스템(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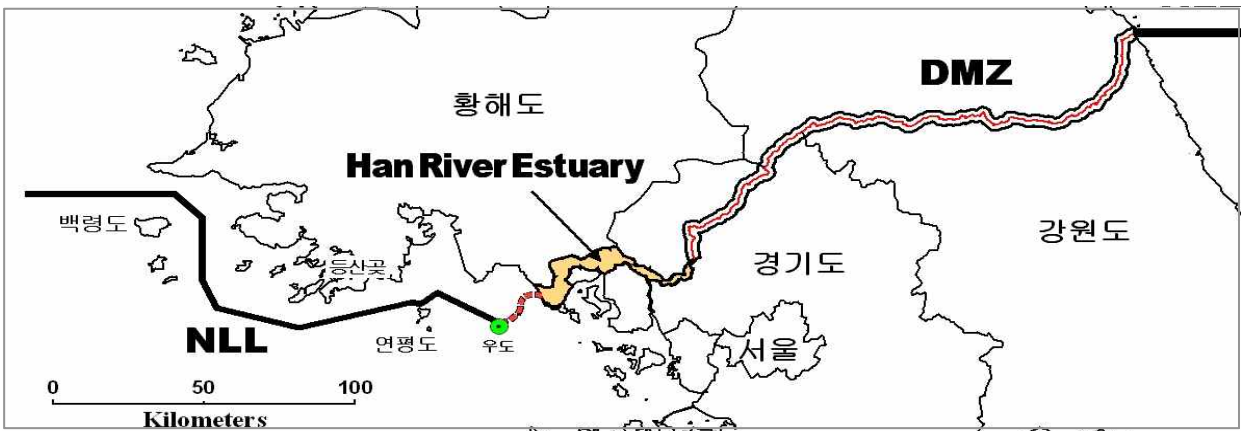
Abstract : The DMZ world Eco-Peace Park is world peace by utilizing the most of the regional assets of the north and south, to build a joint participa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orth-South it is a place to be a symbol. In this study, we analyzed eight evaluation factors to deriver the optimal region of DMZ world Eco-Peace Park and selected Paju-si and Cheorwon-gun as the optimal reg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policy establishment

Keyword : DMZ (Demilitarized Zone), Korea DMZ World Ecology Peace Park,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1. 서론

군사분계선이 지금의 위치에서 한반도를 양분한 것도 벌써 50년이 넘게 지났다. 그동안 군사분계선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북방향으로 각각 2㎞씩 설정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이하 DMZ)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한반도를 양분하고 있는 DMZ 또한 5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싹을 틔워 지금은 우리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김창환, 2007). DMZ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 이후 남북간 무력충돌을 막기 위하여 설정된 완충지대로서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DMZ는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서측 임진강 하안에 세워진 군사분계선 표식판 제0001호에서부터 동측의 제 1,292호까지 1,292개의 경계표지판으로 설정된 군사분계선을 남북 각각 2㎞, 총 4㎞에 설정된 공간이다.

DMZ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은 다양한 공간적 명칭을 가지고 있다(그림 1). 한강하구중립지역, 북방한계선(NLL), 민간인 통제선, 접경지역 등이 있다. 한강하구 중립지역은 강화도의 말도에 이르는 지역으로 남북 공용의 특수지역을 일컫는다. 한강이 서해로 유입하는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의 제1조 5항에 의하여 남북한 쌍방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육지 상의 비무장지대가 남북한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역이다.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 Mark W. Clark 대장에 의해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해 및 서해에 남한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짓기 위한 선이다(국방부, 2002).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 정의된 법률적 공간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된다.



[그림 1]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중립지역, 북방한계선

자료 : 김창환, 2009

2.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입지 선정

1)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공간적 개요

현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규모 및 기능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전무한 상황으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임의적인 기능 및 규모를 설정하여 공간적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규모 및 기능은 DMZ의 가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기존에 진행되어오던 관련 사업들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DMZ의 독특한 자연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DMZ는 정전 직후 폐허가 된 생태가 60년 동안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세계 유일의 공간이며, 이러한 DMZ의 자연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 자연탐방로, 체험학습장 등의 기능들이 DMZ 세계평화공원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이 필요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에 의거하여 남북 대치의 상징인 DMZ가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 기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공동으로 구축하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입지를 위해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입지선정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인자는 크게 자연환경 인자와 사회환경 인자로 구분하였다. 자연환경 인자는 건축물 입지의 주요 평가인자인 표고 및 경사와 DMZ의 자연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DMZ 일원의 생태자원인 식생, 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환경 인자는 접근성의 지표가 되는 교통(도로 및 철도) 및 DMZ의 특수성이 반영된 관광지와의 접근성, 군사시설물과의 이격도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1). 자연환경 인자 중 DMZ 지역의 표고는 한반도의 지세를 반영한 동고저서의 형태로, 파주-연천-철원군 까지는 평탄한 기복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부지역은 산악지대로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이 이어지며, 동부지역은 경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해안과 만나 비교적 평탄한 지형을 이룬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m 이하의 저고도 지역으로써 개발이 용이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파주·연천·철원 지역과 고성 지역이 후보지역이 될 수 있다(그림 2). DMZ 일대의 경사도는 표고를 반영하여 파주와 철원 지역이 5° 이하로 낮은 편이며, 철원의 동부지역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는 대부분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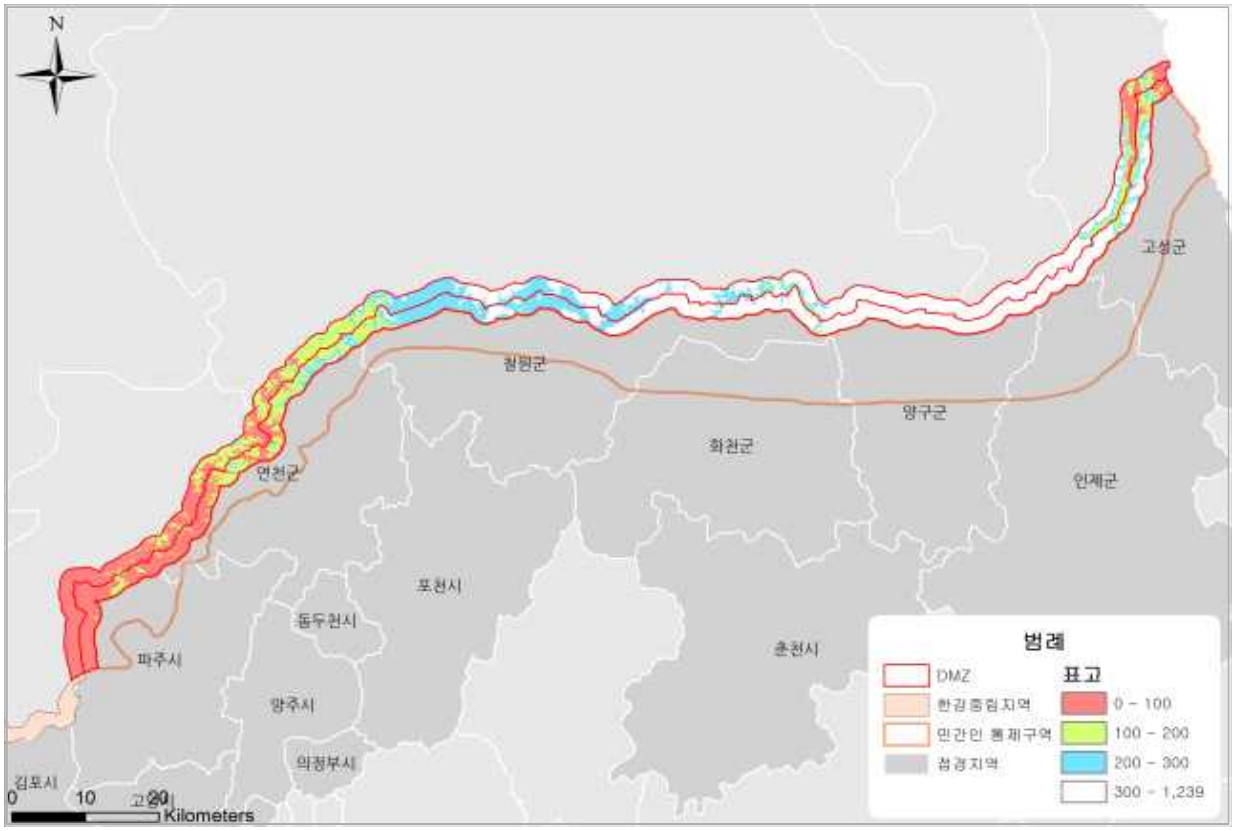
역이 경사도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연천군의 경우, 표고는 낮지만 10° 이상의 경사를 갖는 지역이 다수 분포한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소요비용의 절감 및 산사태 등의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경사도가 낮은 지역이 유리하며, 이에 따르면 파주와 철원 일대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DMZ 일원의 생태자원은 사람의 접근의 어려워 비교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식물 2,451종, 포유류 45종, 조류 260종, 양서류 31종, 어류 143종 등이 서식하여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은 총 82건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4). 표고·경사도가 낮아 토지이용의 제약이 적은 파주지역은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이 드물며 반대로 산악지역이 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은 생태자원의 분포 및 밀도가 높다. 평탄한 지역으로는 연천과 철원의 경계지역에 생태자원이 일부 분포하고 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상징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관광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생태자원을 활용·연계한 교육·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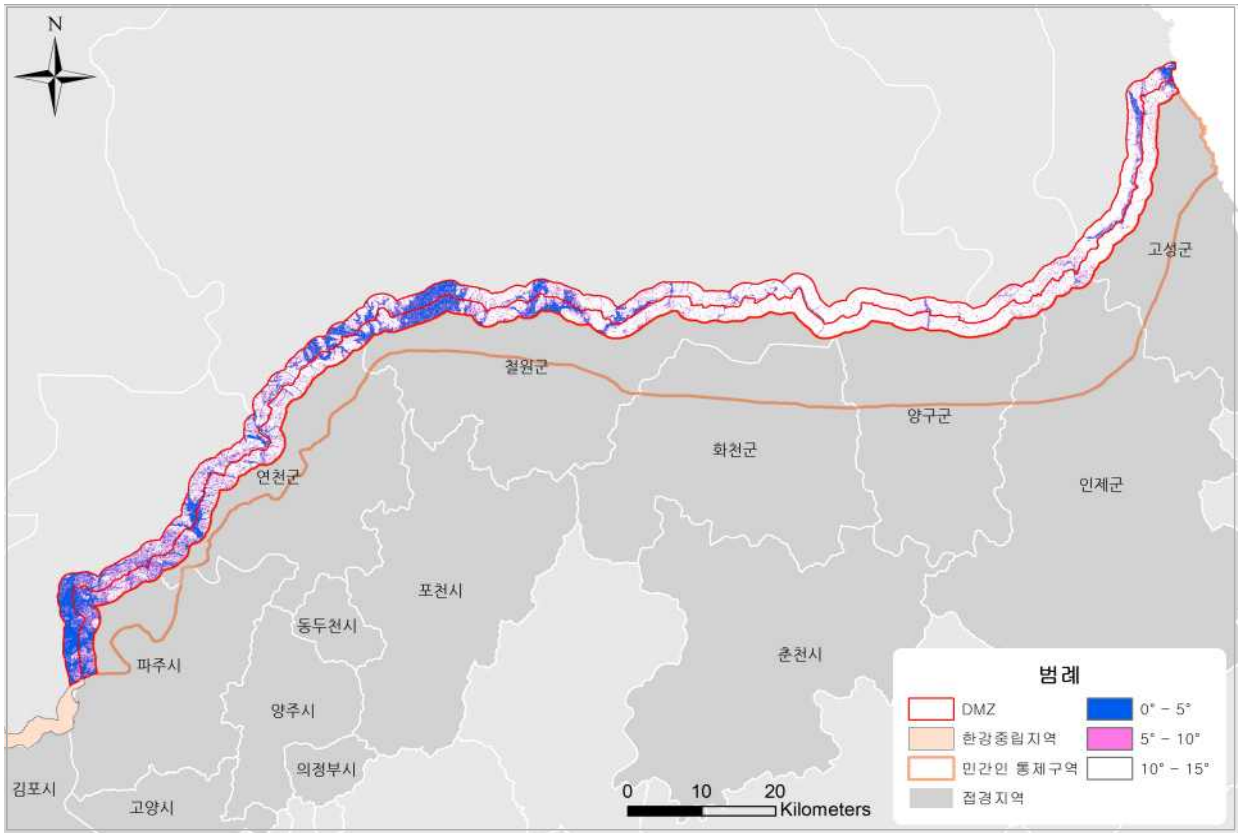
사회환경 인자 중 교통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입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접근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어야 한다. 현재, 남북 간 통행이 가능한 교통로는 파주-개성공단(1번국도)과 고성-장전(7번국도), 경의선 철도(개성역 까지 시험 운행 완료) 등이 있으며, 화천-고성 구간의 험준한 산악지역은 교통로의 발달이 미약하며 기존도로를 통해서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파주와 철원 지역은 다른 DMZ 지역에 비해 평탄하여 교통로 개발이 용이하며, 철원군의 경우 금강산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철도복원이 용이하다(그림 5). DMZ 일원의 관광자원에는 역사·문화, 전적·안보 관광 자원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43점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시·도지정문화재 및 비지정분화재가 21점이 있고, 전적·안보 관광자원은 6.25전쟁의 유물 및 흔적, 전쟁 이후 만들어진 땅굴, 전망대, 평화기원 상징물 등으로 있으며, 임진각 일대의 전적·안보자원과 각 고지의 전망대, 화천 평화의 댐 등이 있다(그림 6). 관광자원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교육·관광 기능과 연계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DMZ는 명목상 비무장지대이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각종 군사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북한의 군사시설물은 DMZ 일대에 넓에 분포하여 있으며 특히, 고도가 낮고 평탄한 서부전선지역에 많은 수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다. 반면 중·동부 전선에는 군사시설물이 존재하지만 험악한 산악지대라는 요인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다(그림 7). 군사시설물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격된 곳에 입지되어야 한다.

[표 1] 평가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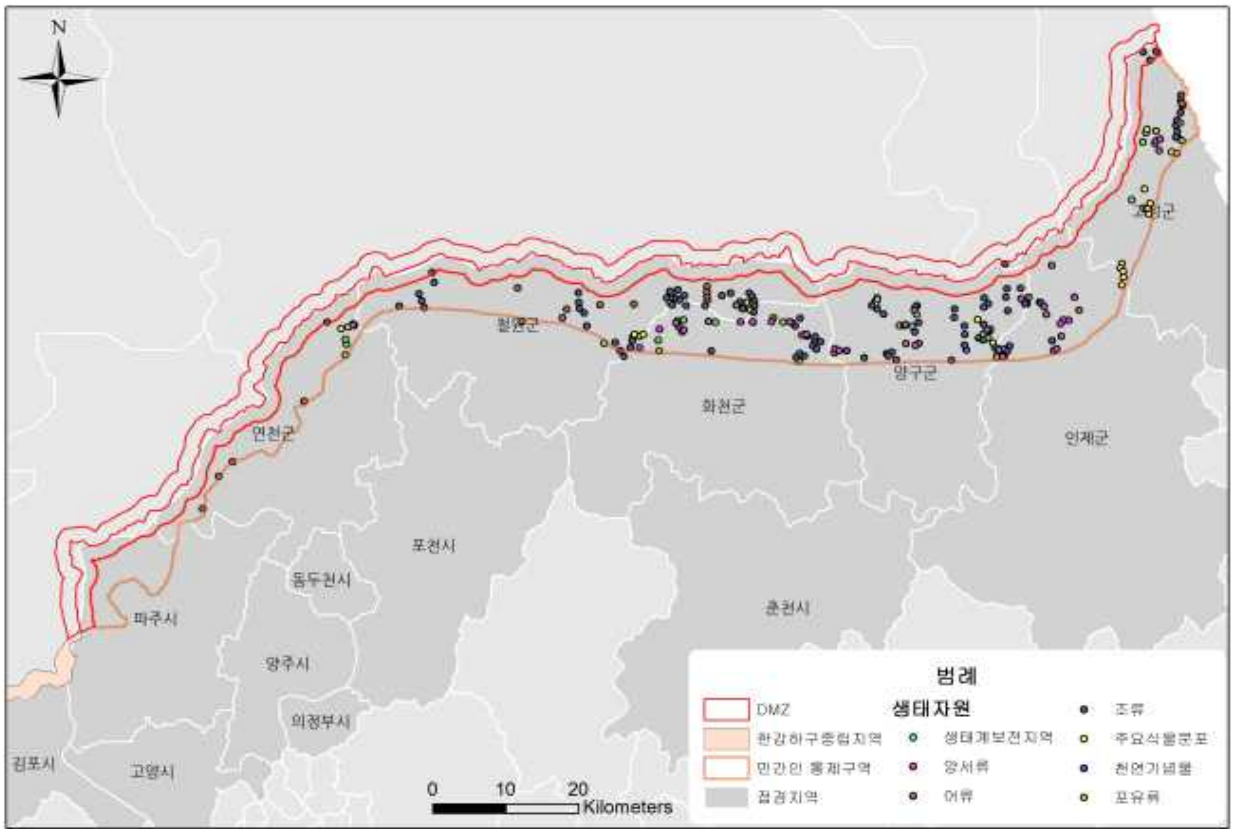
주요 평가인자	세부 평가인자
자연환경 인자	표고, 경사, 생태자원(주요 식생 분포, 천연기념물, 생태계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사회환경 인자	교통(도로, 철도), 관광자원, 군사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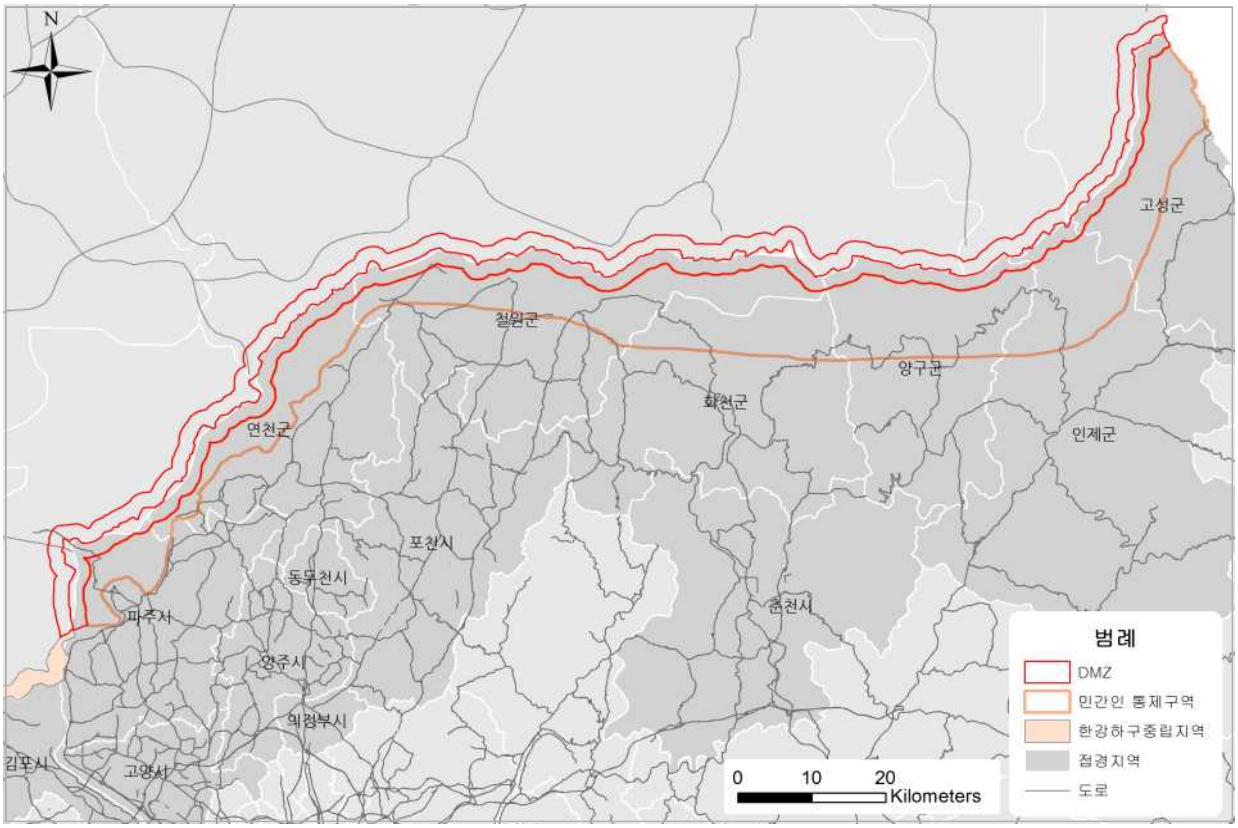
[그림 2] DMZ 일원의 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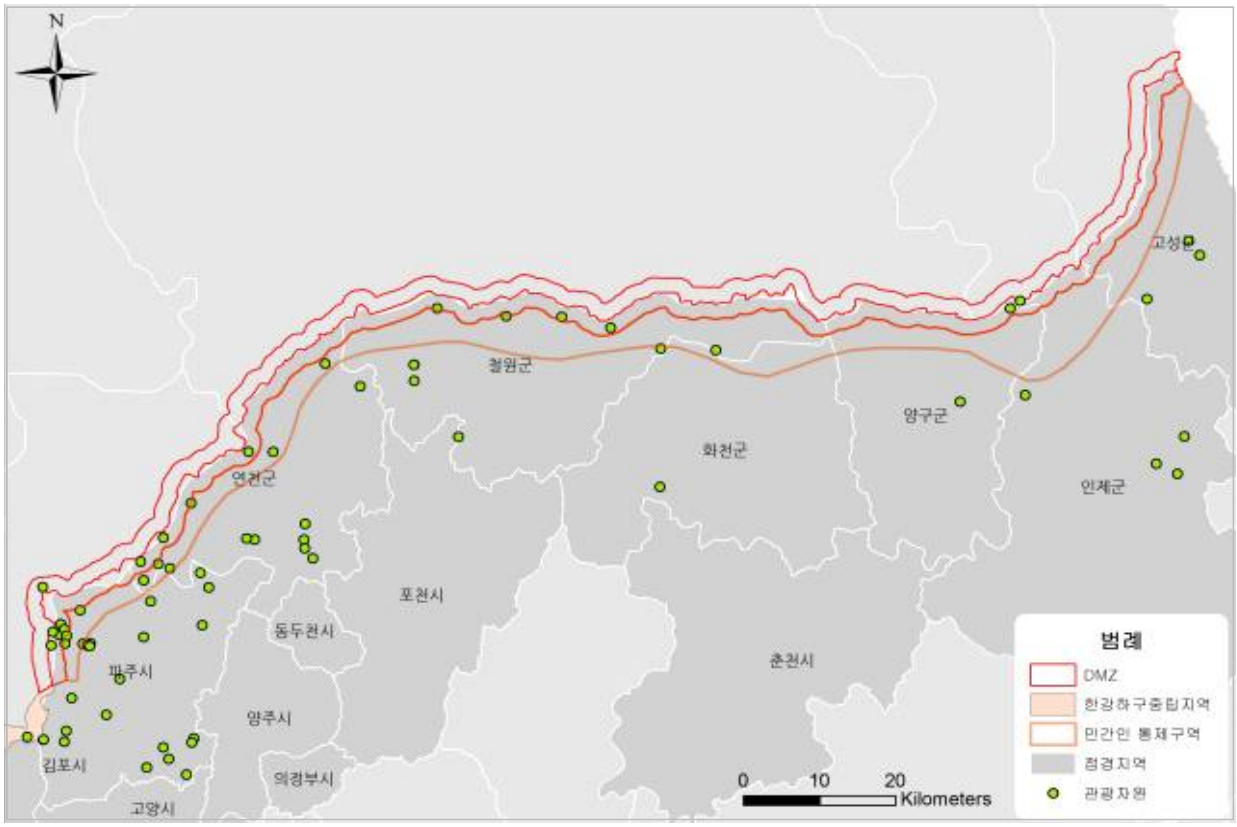
[그림 3] DMZ 일원의 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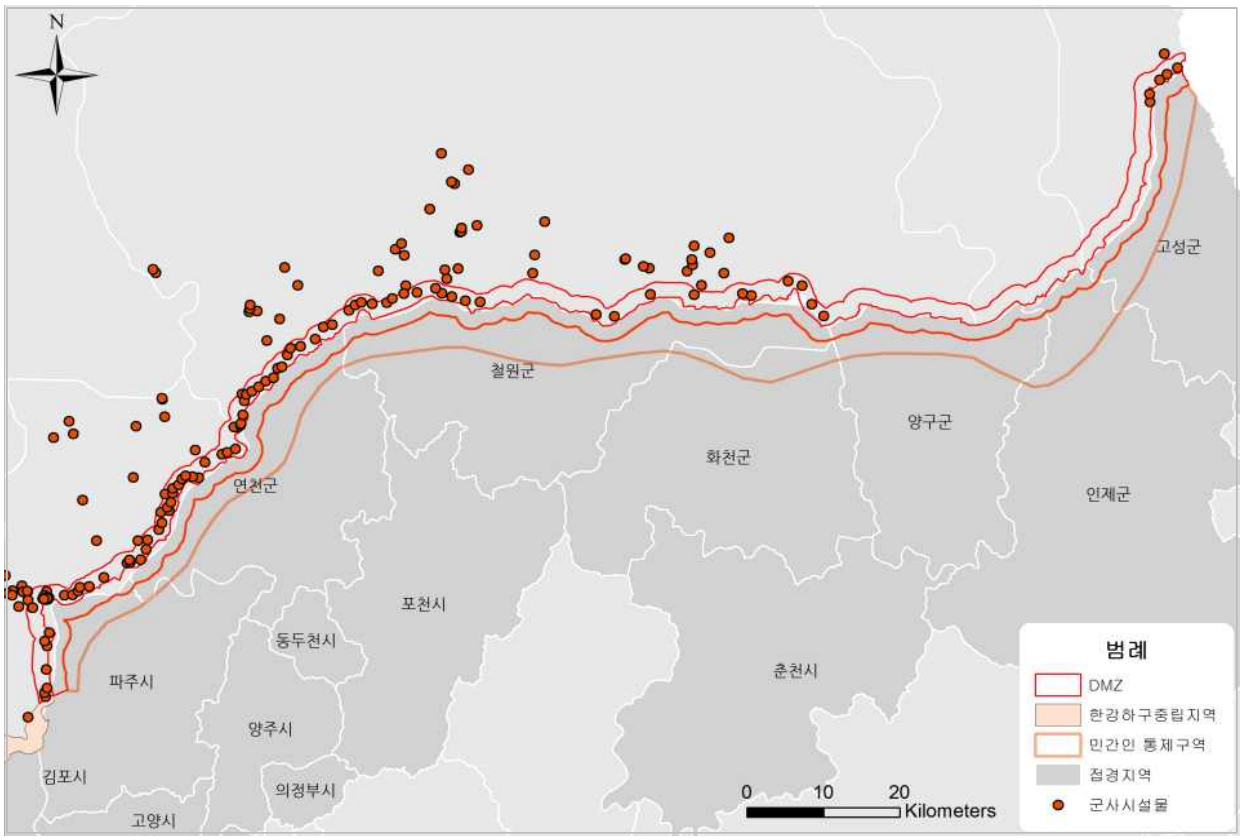
[그림 4] DMZ 일원의 생태자원



[그림 5] DMZ 일원의 교통로



[그림 6] DMZ 일원의 관광자원



[그림 7] DMZ 일원의 군사시설물

3)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최적지역 선정

자연 및 사회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최적 입지 선정과정은 1차적으로 자연환경 인자인 경사와 표고를 평가하여, 경사가 낮고 표고가 비교적 낮은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어 평가하였다. 1차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후보지역 중, DMZ 세계평화공원이 입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갖는 공간을 선발하기 위해 넓은 면적을 우선순위에 두어 2차 평가를 실시하고 1차 및 2차 평가에서 도출된 순위에서 생태자원, 교통, 관광지, 군사시설물, 하천 등의 인자를 4등급으로 나누어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인자를 선정하여 및 1~5순위까지의 입지 순위를 도출한 결과, DMZ 세계평화공원은 파주·연천·철원군이 최적의 입지 장소로 선정되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입지 가능한 지역의 면적은 235.02㎢ 이며, 철원군의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나며, 파주·연천·고성군 순을 보였다. 1순위 지역은 파주시 및 철원군 일대로 약 9.58㎢의 면적에 입지가 가능하며, 철원군이 6.34㎢, 파주시가 3.24㎢로 나타났으며, 2순위 지역은 파주가 11.22㎢로 가장 넓으며 후순위로는 철원, 연천이었고, 3순위 지역은 117.71㎢로 순위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철원이 70.27㎢로 가장 넓었다. 4순위 지역은 파주가 33.88㎢로 가장 넓으며, 강원 고성군이 적지만 일부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있었다. 마지막 5순위 지역에서는 연천군이 가장 넓었으며 파주, 철원 고성 지역이 그 다음 순위로 그 면적은 대동소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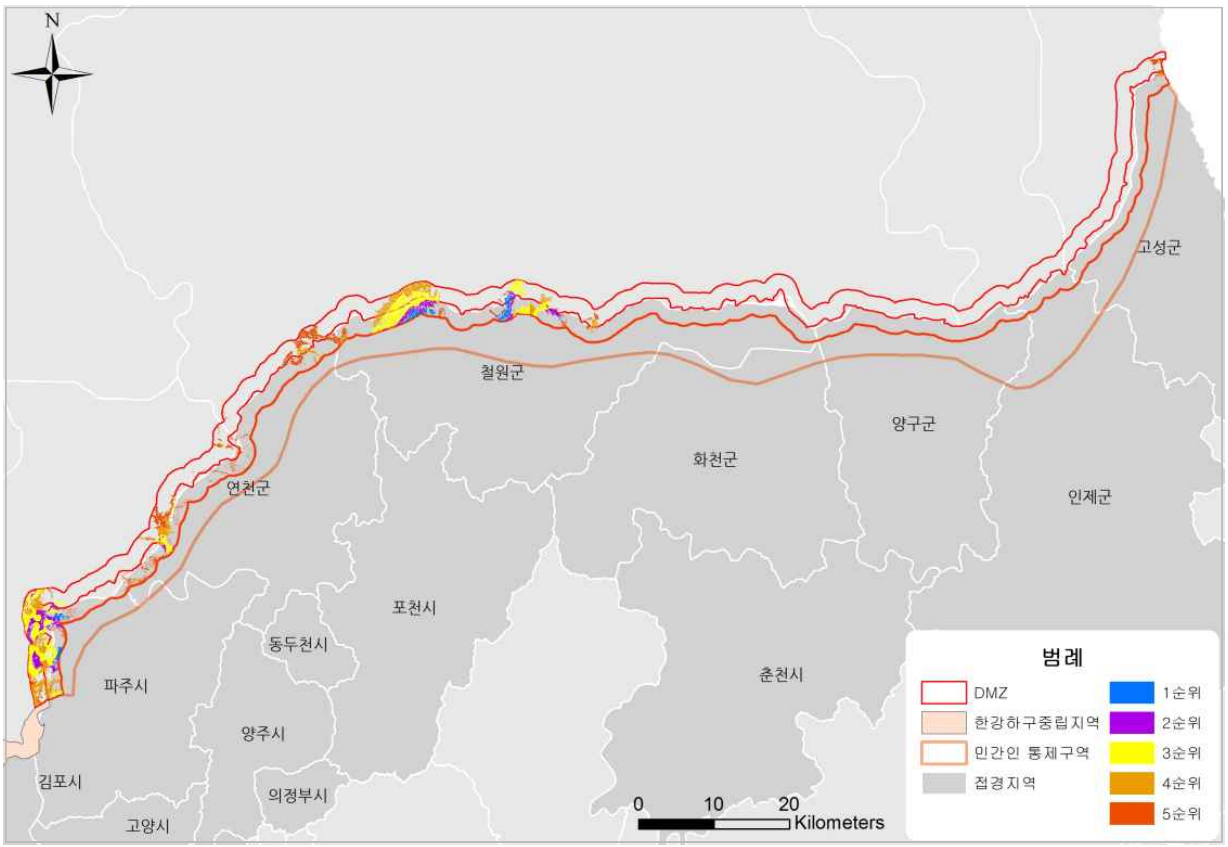
최종 분석 결과, 철원군과 파주시가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입지의 최적의 장소로 분석되었다. 파주지역은 낮은 표고와 경사도, 교통로의 발달에서 비롯하는 높은 접근성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었다. 낮은 표고와 경사도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시 기초 토목 공사 등 물리적인 부문에서 시간 및 비용 감소에 효과가 크다.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1번국도와 경의선 철도는 현재 남북 간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교통로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철원지역은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들이 분포함과 동시에 평탄한 기복, 향후 남북 간 교통로 개발의 용이함에서 또 다른 입지의 최적 장소로 분석되었다. 철원 일대의 다양한 생태자원은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교육·관광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주 지역에 비해 표고는 높으나 용암대지의 발달로 매우 평탄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에 용이한 점도 장점으로 분석되었다.

[표 2] 1차 평가

인자 / 가중치	경사	표고
4	0°~5°	0m~300m
3	0°~5°	300m~500m
2	5°~10°	0m~300m
1	5°~10°	300m~500m
0	10°	500m

[표 3] 2차 평가

인자 / 가중치	면적	생태자원 접근성	교통 접근성
3	10㎢~40㎢	0㎞~0.5㎞	0㎞~0.5㎞
2	4㎢~10㎢	0.5㎞~1㎞	0.5㎞~1㎞
1	1㎢~4㎢	1㎞~3㎞	1㎞~3㎞
0	1㎢미만	3㎞ 이상	3㎞ 이상
인자 / 가중치	관광지 접근성	군시설 접근성	하천 접근성
3	0㎞~1㎞	2㎞	0㎞~0.5㎞
2	1㎞~2㎞	1㎞~2㎞	0.5㎞~1㎞
1	2㎞~3㎞	0.5㎞~1㎞	1㎞~3㎞
0	3㎞ 이상	0.5㎞ 미만	3㎞ 이상



[그림 8]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입지 순위

<표 5> 지역별·순위별 면적

단위 : ㎡

구분	파주	연천	철원	고성	계
1순위	3,242,099	-	6,343,577	-	9,585,676
2순위	11,224,994	281,800	10,451,542	-	21,958,336
3순위	45,519,597	1,921,213	70,272,453	-	117,713,263
4순위	33,880,107	7,251,062	12,942,044	217,422	54,290,635
5순위	5,147,136	19,795,272	3,414,675	3,116,555	31,473,638
계	99,013,933	29,249,347	103,424,291	3,333,977	**235,021,548**

3. 결론

DMZ 및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이자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 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입지 선정시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의 고려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DMZ 내에서도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각개 다르므로,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 특화된 DMZ 세계평화공원이 필요하다. 강원도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반면 접근성이 낮고, 경기도 지역은 접근성이 우수하나 생태적 가치는 강원도 지역에 비해 낮으므로 DMZ 세계평화공원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 지역 우선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자제들의 경쟁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공원 유치를 Zero-Sum 게임적인 접근이 아닌 Win-Win 할 수 있는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DMZ세계생태평화 공원’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연 및 사회 환경 인자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하며 지역적 안배 뿐만 아니라 DMZ 인접지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초점을 두고, 남북관계를 고려한 환경적 인자, 정치·경제적 인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자를 고려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한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최적지 선정결과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타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권혁재, 1995, 한국지리 지방편, 법문사
김창환, 2007, “DMZ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4), 454-460.
김형곤, 2013, “창조관광의 개념과 전략”, 한국관광정책, 52, 8-21.
박은진, 2013, “DMZ세계평화공원과 접경지역의 미래”, 경기개발연구원.
심원섭, 2012, “미래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新관광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경주, 2013, “한반도 평화조성과 DMZ 세계평화공원”, 주간국방논단, 1481, 13-38.
최동규, 2004, "비무장지대 안보관광자원의 지속적인 관광화 방안 : DMZ중북부지역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45-60.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문, 1953.
행정안전부, 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
강원도 고성군청, http://goseong.org/
강원도 철원군청, http://cwg.go.kr/
경기도 파주시청, http://www.paju.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go.kr/
구글 어스, http://earth.google.co.kr

교신 : 정해용,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이메일 : wjdgofyd@hanmail.net

Correspondence : Jeong, Hae Yong,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6699, Fax: +82-33-259-5597, e-mail: wjdgofyd@hanmail.net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 경제의 과제와 가능성

A Study on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social economy in the border region of Gangwon Province

이홍택 (강원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지리학전공 박사과정)

정성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LEE, Hongtaek (Doctoral Candidate,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JUNG, Sung-Hoo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약 : 최근 사회적경제가 국가적 차원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또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 접경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당사자 조직들의 자발적 활동도 미미한 상황이다. 접경지역은 DMZ, 근대산업유산, 지역 축제 등 다양한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분배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모델인 만큼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접경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사회적경제, 접경지역, 네트워크

Abstract : Recently, as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a national concern, many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nurture social economy. Gangwon Province has also established the Social Economy Department and has established a social economic support center, which is an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 to provide active support. However, the border area of Gangwon Province is not active compared to other cities, and the voluntary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e also insignificant. The border region has diverse cultural, historical and tourism resources such as the DMZ, modern industrial heritage, and local festival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talize these resources as it is a model of social economy that local residents use to generate profits and distribute them to local communities. And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the border area.

Keyword : Social Economy, Border region, Network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체제에서 노동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성장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800년대 후반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조건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공제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실업과 빈곤문제 해결 등에 기초해 시장경제의 대안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97년 외환위기 후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등장한 이래로, ’07년에 이르러 사회적기업 관련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에 관심 증대되고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강원도 또한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2014년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조례(2014.1.3.)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를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적인 조직형태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강원도 또한 그러한 비난에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부의존성이 심하고 지속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는 잠시 반짝하던 하나의 유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강원도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한계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이 연구는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과제와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국내외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2장). 둘째, 강원도 사회적경제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3장), 셋째, 강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 매출, 영업이익 구조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바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4장). 넷째, 접경지역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5장).

2. 사회적경제 이론적 고찰

1) 사회적경제 개념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나눔’을 경제활동의 주요 원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방식으로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인 Karl Polanyi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원리, 즉 호혜성과 연대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노정한 문제점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 등 삶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하였다.

사회적경제는 학자 및 조직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존재한다. 유럽위원회, OECD, Defourny(1990), Weber(1990) 등 조직 및 학자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참여의 조직운영, 지역중심 경제활동, 사회적 목표 등은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속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예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등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개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부터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경제의 핵심적 구성요소인 사회적기업의 정의, 운영주체별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인증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에 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아래 <표1>은 사회적기업 등 각 대상별 유형과 개념적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며,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외,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과 자활자의 재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표 1]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구분	유형	개념	관련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인증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서비스 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
	생산자 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등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퀵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 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등)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등	

2) 사회적경제 주요 여건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고, 그 이후 정책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후, 2007년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영역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협동조합까지 정책영역에 통합되었고, 사회적경제 전반이 시장경제의 보완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농협, 수협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지역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

적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졌다.

사회적경제는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였다.

영국의 경우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권 이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2005년 기준 약 55,000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금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 전문지원기관,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등 중간지원기관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근간으로 성장하여 각각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6.2%, 10.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표 5대 협동조합(자유주의 협동조합 연합체, LEGACOOP, UNCI 등)만 고려해도 그 규모가 2011년 기준 1,270억 유로(GDP의 7%)이며, 약 100만 명의 고용을 달성(인구의 6.2%)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는 2012년 기준 약 22만 개의 조직에서 2,300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고용(전체 근로자의 10.3%)하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는 협회 78.6%, 협동조합 13.1%, 공제조합 5.4%, 재단 2.9%로 구성되어 있다.

3.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강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0년대에 원주에서 시작된 신협운동이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1972년 원주밝음신협이 창립되었고, 이후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남한강대홍수를 계기로 강원남부권 농촌 및 광산지역 협동운동(신협/소협)이 전개되었다. 이후 생명사상에 관한 관심을 계기로 1985년 원주소비자협동조합(→ 1993년 원주한살림)이 창립되었고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이 등장하였다. 협동조합과 함께 1990년대 말 실업극복운동을 주도한 성공회 원주나눔의 집(1999년 설립)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천주교원주교구 사회복지회 등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운동의 다양한 축을 묶어 내어 협동운동의 네트워크로서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가 2003년 6월에 창립되었고, 2009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참여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이강익, 2014)

강원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는 2014년 10월말 기준 562개이며, 인증사회적기업 57개, 예비사회적기업 90개, 마을기업 91개, 자활기업 79개, 협동조합 245개이다. 시군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보면, 춘천시(93개), 원주시(76개), 강릉시(69개), 속초시(41개), 인제군(32개), 정선군(30개), 횡성군(29개) 순이다. 접경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인제군(32개), 화천군(15개), 양양군(14개)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인제군을 제외하고는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2] 강원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2014년 10월 말 기준)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합계
	계	인증	예비				
춘천시	25	7	18	8	8	52	93
원주시	25	12	13	5	3	43	76
강릉시	20	7	13	7	5	37	69
동해시	3	2	1	3	6	7	19
태백시	6	1	5	4	8	13	31
속초시	20	6	14	4	5	12	41
삼척시	2	1	1	4	9	7	22
홍천군	3	2	1	5	1	5	14
횡성군	7	4	3	6	9	7	29
영월군	6	3	3	7	4	11	28
평창군	3	2	1	8	3	9	23
정선군	4	2	2	8	5	13	30
철원군	2	1	1	5	0	3	10
화천군	3	0	3	5	3	4	15
양구군	1	0	1	1	0	4	6
인제군	10	5	5	6	3	13	32
고성군	4	1	3	2	4	0	10
양양군	3	1	2	3	3	5	14
계	147	57	90	91	79	245	562

자료 : 이강우. 2014, 강원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과 함께 이 개별 조직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나 협회 조직이 생겨났다. 여기서 중간지원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반조성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① 행정과 민간(사회적경제조직) 사이의 가교로서의 중재자이자, ② 민간과 민간(사회적경제조직간,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사이의 협력과 조정자이자, ③ 부족한 민간(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말한다. 협회는 시장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회원조직의 관리, 정치적 로비, 정책개발 활동 등을 통해 회원조직(사회적경제조직 및 업종별, 지역별 연합회)의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말한다.

2014년 10월말 기준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은 21개,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은 22개, 광역단위 협회는 3개로 총 46개이다.

이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인제를 제외하고는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의 자발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표 3] 강원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2014년 10월 말 기준)

유형	내용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21개)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광역자활센터, 시군지역자활센터(16개), ○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기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 4개기관 컨소시엄 구성) ○ 마을기업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강원운영기관(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네트워크형 중간지원조직 (22개)	○ 기초단위 지역네트워크(7개) : 원주, 춘천, 횡성, 강릉, 속초, 인제, 동해 ○ 광역단위 업종네트워크(13개) : 주거복지네트워크, 청소네트워크, 재활용네트워크, 주거복지네트워크, 자활영농사업단, 자활급식사업단, 곡택배사업단, 영양플러스사업단, 커피매장사업단, 체험문화네트워크, 돌봄사회적기업네트워크, 방과후학교네트워크(준), 문화예술관광사회적기업네트워크(준) - 기초단위 업종네트워크(2개) : 강릉친환경클러스터, 횡성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협회(3개)	○광역단위 협회(3개) : 강원도지역자활센터협회,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

자료 : 이강우. 2014, 강원도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4. 강원도 접경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의 과제와 가능성

우선 접경지역의 사회적경제의 과제를 논하기 전에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인증사회적기업은 기업당 평균 21.1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자체고용 근로자 16.9명과 취약계층근로자 12.7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아직도 기업 당 9천만원의 영업손실이 있었고, 이를 영업외수익(보조금 등)에서 메우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매출 확대, 사회서비스 확대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손실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업으로서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 마을기업 또한 전국대비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당 매출실적과 정규직 고용실적을 볼 때, 안정적인 기업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자립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출 및 고용실적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1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은 35개이고, 나머지 50개의 기업은 1억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출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은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생산확대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매출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판매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품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의 경우 우수한 문화·역사·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화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타 시군에 비해 조직의 수도 매우 적

을뿐더러 당사자 조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차 없는 실정이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은 DMZ라는 독특한 문화·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DMZ를 활용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기업, 기념품기업, 마을기업 등이 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활동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을 지역주민이 활용한다는 매우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김동열, 2011,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 성공·실패 사례와 핵심 성공요인(CSF)", <경제주평>(통권 466호), 현대경제연구원.

김성기, 2011, [사회적기업의 이슈와 쟁점], 아르케.

김정인, 2012, “형평과 효율, 갈등을 넘어 조화로 : 사회적기업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라준영, 2010,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벤처경영연구>(제13권 제4호).

오미옥,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고”.

양세훈 외, 2013, [마을기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이광우, 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인재, 2006,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기업 ‘컴원’”(http://www.peoplepower21.org/658594)

장대철, 2013, “비영리 조직 및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 <기업윤리 브리프스>(2013-7호).

조성열·김백수, 2011, “사회적기업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 [직업재활연구](제21권 제2호), 한국직업재활학회.

Jonatha Coburn·Rick Rijsdijk, 2010, [Evaluating the Success Factors for Establishing a Thriving Social Enterprise in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LEE, Hongtaek

교신 : 이홍택,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8082, 팩스 : 033-250-8082, 이메일 : lht@hanmail.net

Correspondence : Hongtaek Lee,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8082, Fax: +82-33-250-8082, e-mail: lht@hanmail.net

유라시안 신(新) 실크로드 개발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Eurasian New Silkroad and the Korea DMZ Eco-Peace Park

김창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KIM, Chang-Hwan (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l Univ.)

요약 : 본 연구에서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을 제시하였다.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기존 비연속적 유라시아-한반도의 교류 경제 노선에 있어 유기적이며 다각화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북방 지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유인을 통해 북한의 관광노선에 일조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그뤼네스 반트-유라시아-한반도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창조관광

Abstract :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the Eurasian New Silk Road, a creative tourism type that can bring about the necessity of forming the DMZ World Eco-Peace Park internationally. The development of the Eurasian New Silk Road in the Creative tourism type can be a new paradigm for the economy of northern region that can be changed into an organic and diversified direction in the existing non-continuous Eurasia-Korean interchange and economic route. It can also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tourism route of North Korea through the direct attraction of foreigner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MZ World Eco-Peace Park. It can also be expected to play a role as a basi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for the creation of an Eco-Peace Belt leading to Europe's Grünesvant-Eurasia-the Korean Peninsula Baekdudaegan.

Keyword : Eurasian New Silk Road, DMZ World Eco-Peace Park, Creative tourism

1. 서론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서는 남북간 호혜적 교류 및 협력 확대를 기반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서 2013년 5월 8일 미국 의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나아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자, 동북아시아의 긴장해소 및 세계평화의 모티브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DMZ는 세계평화의 위협요소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의 전환 장소이자 남북 및 동북아시아의 공동 목적과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장소로서, DMZ만이 가지는 가치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전략과 연계가 된다면, 향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각종 시너지가 창출 될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의 창조, 공영 및 평화 대륙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모델이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Roald Express, 이하 SRX)‘ 구축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전략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주요한 전략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과거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복합적인 국제수송로 구축 및 IT 기술의 접목 등 교통수단 및 범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중국의 G2 부상, 세계 경제 중심의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 자원수송로의 중요성, FTA 등 경제공동체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으로 유라시아 여러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SRX 구축의 성공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2014, 서종원).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과 창조경제를 보다 구체화 하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DMZ를 보다 평화·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라시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SRX 및 아시아 하이웨이 6번 국도 등 교통로를 이용한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新 실크로드’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제안에 있어서의 북한의 전망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데, 현재 북한 내에는 평양관광대학 준공, 관광인프라 개선 및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조성 예정 등 경제 부흥을 위하여 관광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新 실크로드’는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보다 가시화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기존의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 일반통행이었던 교류·경제노선을 외국인의 직접 유인을 통해 다각화된 방향의 교류·경제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협력모델인 ‘DMZ세계평화공원’을 보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유라시안 실크로드 경로와 관련된 연구 등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주요 정책적 측면과 기존 실크로드 관광 사례를 바탕으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주요한 대안으로서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관광경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적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라시안 실크로드 경로에 관한 연구동향

과거 동서교류의 발판이었던 실크로드는 전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묶은 항공 운송과 대량의 컨테이너 적재가 가능한 해상 운송의 발달로 사양되었으나 21세기에 이르러 다수의 정책이 등장하고 연구가 진행되면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로로서 재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복원이 진행되면서 한반도-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개념이 대두됨에 따라 철의 실크로드를 따르는 철도 여행 관광, 물류 수송 등 인적·물적자원 교통로로서의 실크로드 연구가 활발하였다. 최근에 들어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철도 활용 및 건설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실크로드 재실현을 통한 경제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전략으로 SRX 구축 방안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위해 논의 중이며,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 주변국과 고속철 및 항구 건설 협의를 구하는 중이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신 실크로드'라는 개념이 이슈화되면서 실크로드 구축 방안과 실크로드 현실화 가능성, 실크로드 경제성 파악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 1>은 실크로드 경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물류수송부문과 관광부문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류수송부문에서는 유라시아대륙 간의 해상, TSR, TCR, TKMR 등 다양한 경로의 물류이동 현황(함범희, 2003; 함범희, 2008)과 각 철도노선별 장단점(함범희, 2003; 조규진, 2004) 그리고 유라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수송이 현실화 될 경우 남한기업의 효율적인 철도노선 이용 방법(조규진, 2004)이 연구되었다.

관광부문에서는 실크로드를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의 상품화 가능성과 효과적인 상품 활성화 방안(신윤숙, 2001; 송기헌, 2009)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송기헌(2009)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크로드 여행상품을 제시하고 이러한 실크로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과 같이 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크로드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이효진, 2014)가 활발하다. 2014년 2월에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탈렙 리파이(Taleb Rifai)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실크로드 관광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언급하였으며,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0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서울에 이르는 1만 5000km의 대장정을 통해 원코리아 유라시아 자전거 원정대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우리나라 철도를 홍보할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원정대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최근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표 1] 실크로드 경로에 관한 선행 연구

저자	연도	분야	내용
신윤숙	2001	관광	-유라시아 철도여행의 상품화 가능성과 유용성에 대한 연구 -유라시아 대륙횡단철도 연결 사업 노력은 인적수송으로 인한 관광산업분야 중 특히 장거리 철도여행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저자	연도	분야	내용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고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한반도 횡단철도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운영될 때 유라시아 철도여행을 구상 할 수 있음.
함범희	2003	물류	-동북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물류경로 구상으로 '일본-한국-북한-중국(-중앙아시아)-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Eurasian Railroad 즉, 철의 실크로드를 제시 -동북아시아와 유럽간의 수송수단인 해상운송, TSR(Trans-Siberian Railway), TKMR(Trans-Koeran/Manzhou), TCR(Trans-Chinese Railway) 현황 조사
조규진	2004	물류	-남한기업의 유라시아횡단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 루트와 TSR과 TCR 이용에 따른 물류 수송의 강점과 약점
주풍	2006	관광	-북한지역과 유라시아지역 관광자원을 철도 노선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남북철도와 대륙횡단철도를 연계한 대북 관광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함범희	2008	물류	-현재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흐름은 항공 운송을 이용한 소량의 특수 화물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상을 통해 물류 이동이 이뤄짐. -유라시아 대륙간의 육상교통 활용을 위해 러시아, 중국, 동유럽, 중앙아시아, 몽골, 일본 등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현실화 되면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 효과는 기존의 실크로드 역사적 가치를 초월
송기헌	2009	관광	-항공과 해운산업의 발달로 동서교류의 주요한 역할을 상실한 실크로드가 세계 배낭여행의 메카로 탈바꿈 -실크로드는 3대간선로(幹線路)와 5대지선로(支線路)로 구성 ◦유라시아 동서를 연결하는 간선로인 초원로(Steppe Route), 오아시스로(Oasis Route), 남해로(Southern Sea) ◦중앙아시아 지역의 남북을 잇는 지선로인 마역로, 라마로, 불타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 -현재 실크로드를 테마로 한 여행코스는 우루무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에서의 실크로드 여행, 사마르칸트가 중심이 되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실크로드 여행, 훈자지방을 이어 중국으로 넘어가는 파키스탄에서의 실크로드 여행이 있으며 그 외 터키, 이란 등 지역 여행 코스에 실크로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상품에는 언급되지 않음.
이효진	2014	경제	-2013년 중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구축에 관한 구상을 발표 -중국은 20~30개국과 고속철 협력을 논의하면서 육상 실크로드를 추진함과 동시에 해상 실크로드 연계를 위한 항구 건설 협력 추진 중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과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은 동일한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양국 정부간의 조율과 협력이 요구됨.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국은 교통 · 에너지 인프라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나 한국은 교통 · 물류 중심의 협력을 추진
나희승	2014	물류	-실크로드의 루트 현황, 유라시아대륙간의 물동량 전망, 실크로드 주변국의 철도 현황 및 건설계획 그리고 철도 궤간 차이의 극복 방법을 제시하여 한반도종단철도와 유라시아 철도 구상
이재훈	2014	물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기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PX) 철도망 구축방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을 위한 철도 사업 투자우선순위 조정 ◦북한지역의 정치적 불안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열차페리를 통한 TCR · TSR 연결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 조직

저자	연도	분야	내용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로드맵 작성
성원용	2014	국제통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의미와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와 입장을 정리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나희승	2014	교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 유라시아철도가 갖는 의미 -한반도 통합철도망의 단계별 추진 전략과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과제 -한국의 동북아 및 유라시아 물류 동향 분석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평가 -중앙아시아 지역 철도망의 한계와 과제
서종원	2014	교통	-기존 유사 사업인 철의 실크로드 사업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비교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방안 ◦유라시아 전체의 공영 추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구축 ◦유라시아 국제협력기구에의 활발한 참여 ◦남북관계 회복 ◦우리나라 관련 철도망 우선 복구

3. 남북교류 관련 정책 현황

1) 남한정책

6.25전쟁 이후 35년간 중단되었던 남·북간 교류는 1988년 7.7특별선언으로 재개되었다. 이후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남·북간 교류는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1988년 7월 이후부터 1991년까지는 북한의 남북교류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타국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1991년 12월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1992년 9월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각각 체결되면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직접 교역의 가능성을 높였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남북관계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으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다시 진전되었으며, 특히, 1988년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라 금강산 관광 및 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 박왕자 피격사건 전까지 개성공단 조성,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등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8년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남·북간 교류 침체기로서 천안함 침몰, 5.24조치, 연평도 포격 등 긴장상황 속에서 냉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상황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한의 지난 두 정권동안의 남북교류 현황은 <표-2>와 같다. 주민왕래 및 교역규모, 차량운행은 이명박 정부에 더 많았으나, 대북지원액 및 협력사업승인, 차량물동량, 항공기 왕래는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대북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당시 12,747억원에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 2,563억원으로 6배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족화합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 보면 이산가족상봉의 수가 13배 가량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공단 출입에 따라 주민왕래는 많이 증

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교류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북지원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주민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1995년 쌀 15만톤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북교류의 상황과 비슷하게 지원액 규모가 차이가 난다. 1995년부터 2013년, 총 18년간 대북지원 총액은 3조 2,379억원이며, 2013년도 대북지원 총액은 186억원(정부차원 135억원, 민간차원 51억원)으로 전년대비 45억원 증가했다.

[표 2] 참여 및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 현황

구 분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주민왕래(만명)	39.2	66.4
교역규모(억달러)	56.2	89.4
개성공단교역(억달러)	9.6	67.0
이산가족상봉(정부주선,명)	14.600	1.774
대북지원액(정부+민간,억원)	12,747	2,563
협력사업승인(건)	370	108
차량운행(회)	49.4	84.9
차량물동량(만t)	217	139
항공기왕래	589(42,495명)	77(3,812명)

<자료 : 통일부>

[표 3] 대북지원 현황

연도	정부차원(억)	민간차원(억)	합계	식량차관(억)
1995-2000	3,589	1,081	4,646	1,081
2001	975	782	1,757	0
2002	1,140	576	1,716	1,510
2003	1,097	766	1,863	1,510
2004	1,313	1,558	2,871	1,359
2005	1,360	779	2,139	1,787
2006	2,273	709	2,982	0
2007	1,983	909	2,892	1,505
2008	438	725	1,163	0
2009	294	377	671	0
2010	204	200	404	0
2011	65	131	196	0
2012	23	118	141	0
2013	135	51	186	0
총합	14,889	8,762	23,627	8,752

<자료 : 통일부>

2) 북한정책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한 및 국제사회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북한의

개방·개혁 및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기존의 체제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고 내부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아직도 지속적인 선군정치를 펼치고 있다. 현재의 북한 상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향한 근본적인 개혁이나 북한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업데이트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발은 아직 어렵다고 하더라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의 과제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조동호, 2013).

현재 김정은 체계에서는 경제적 해결을 위해 관광 산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평양관광대학을 완공하여 다른 외국관광 기관 및 대학과 연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월 “강원도 원산-금강산 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었다”고 보도하며, 마식령 스키장 건설 및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규모 리모델링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조선화보사가 발행하는 대외용 월간 화보집 ‘조선’에서는 북한이 세포등판에 스키장과 썰매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렇듯 북한 내부에서도 외화 획득을 통한 경제적 난국을 해결하려고 시도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 내의 관광활성화 산업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북한 관광 자체에서의 제한과 통제,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은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북한에서는 독자적인 해결보다는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남한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DMZ세계생태평화공원과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의 관광경로와 개발방안

1)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의 관광경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천전략인 SRX 구축은 운송 수단인 철도를 중심으로 도로·해상·항공·내륙항만 등이 결합된 국제복합수송로로 화물 중심의 철의 실크로드와 구별되는 여객수송로로서의 기능도 포함된 개념이다. SRX 구축은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실현하기 위한 보다 많은 검토를 요한다. 그리고 철도가 주된 수송로로 검토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창조관광형 신 실크로드’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류 협력의 가장 핵심은 인적·물적 교류이다. 그 교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수단은 관광으로, 국가 간 상호 적대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관광을 통한 외국인의 직접 유인으로 다각화된 방향의 교류·경제노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인 ‘DMZ세계평화공원’을 보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新 실크로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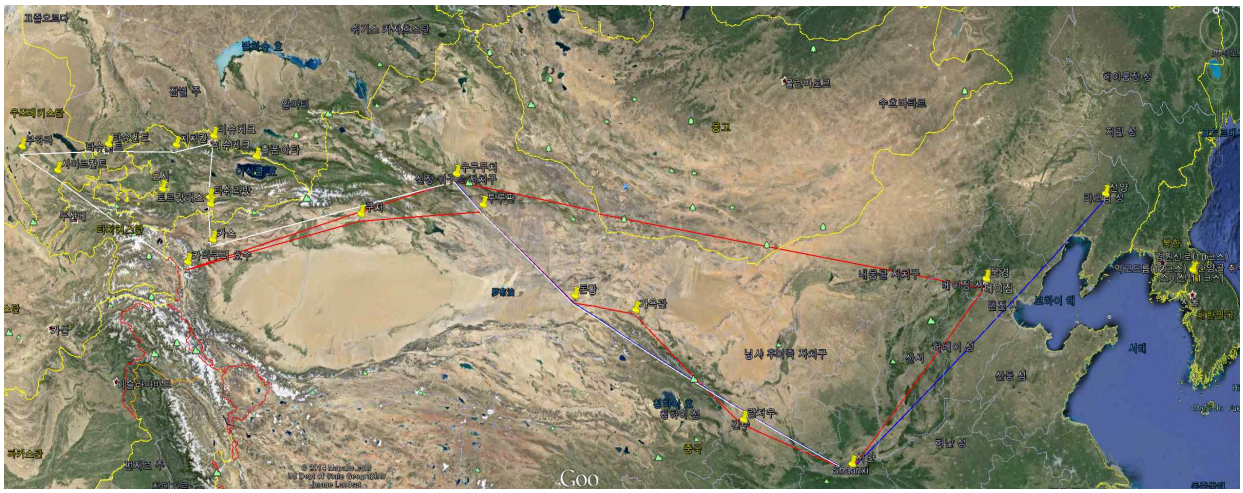
현재,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활용한 관광은 현재 중국 시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은 8일에서 27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3가지 루트에 의한 상품이 운영되고 있다.

하얀색 경로인 정통 실크로드 배낭여행 상품은 27일로, 중국 시안-둔황-투루판-우르무치-카스-

키르기즈스탄의 타쉿라밧-촐폰아타-비쉬켁-오쉬-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타슈켄트-사마르칸트-부하라-타슈켄트의 경로로 기차, 버스, 전용차, 택시를 이용하여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빨간색 경로는 정통 실크로드 대장정 15일 상품으로 중국 시안-란저우-가욕관-둔황-투루판-쿠처-카시-우르무치로 구성된 기차가 주된 이동수단인 상품으로 중국내에서의 실크로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파란색 경로는 북경-우루무치-투루판-돈황-시안-심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차-전용차를 이용한 실크로드 배낭여행 상품 8일 상품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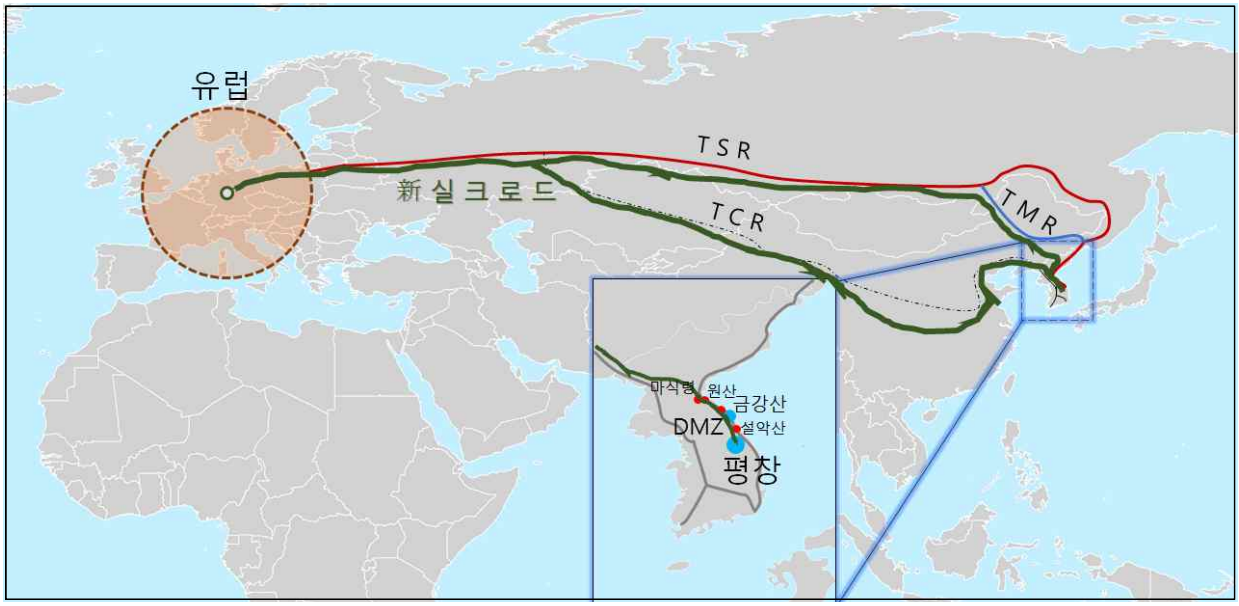
대부분의 실크로드 관광상품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을 중심으로 한 배낭여행형 상품이며, 주로 중국내의 실크로드를 활용한 상품이 많고, 여행 일수에 따라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포함한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실제 운영 중인 실크로드 관광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조관광형 신 실크로드 관광과 목적 및 범위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본 관광경로는 <그림 2>와 같이 현재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된 주요 철도 및 도로망을 활용한다.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한 카루트(Caravan Route) 관광, 철도 및 도로를 활용한 알루트(Rail-Road Route) 관광, 철도-도로-항만을 활용한 콤루트(Complex-Route) 등 3R Smart-Way를 기본으로 하며, 독일(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중국(몽골)-북한-남한을 주요기점으로 하는 관광이다<그림 3>.



[그림 1] 중국 실크로드 관광상품 주요 경로

[그림 2] 유라시아-한반도 연결 루트



[그림 3] 창조관광형 신 실크로드- Smart-Way

2)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의 개발방안

유라시아 신 실크로드 개발은 단순히 유럽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교통망만을 이용한 관광이 아니다. 이는 일반관광과 달리 장소적 특수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이다. 즉, 풍부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바탕으로 진정성 넘치는 경험을 얻을 수 있으며, 관광지의 고유 문화를 영위해가는 지역주민들과의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창조관광이다. 유럽의 많은 관광객들은 캐러반, 철도, 크루즈 등을 이용하여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Smart 3R을 통해 유라시아 및 중국, 북한의 백두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DMZ, 남한의 백두대간(설악산)을 거쳐 평창으로 오는 경로로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관광경로만을 의미한 것이라기

보다는 유럽의 그뤼네스반트-유라시아-중국(몽고)-백두대간(백두산, 금강산, DMZ, 설악산, 평창)을 잇는 평화생태벨트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DMZ세계평화공원이 위치하게 되면 관광경로의 의미가 세계평화의 상징적인 경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활용한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보다 단축할 수 있으며,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면에서 협력이 보다 원활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외부 개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고,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 및 남북협력의 돌파구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3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간 협력체계이다. 이는 관광경로를 중심으로 관련 국가 간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할 때,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유럽-유라시아-중국-몽고-북한-남한의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에 관한 핵심 어젠더 도출과 이에 따른 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는 초기 시작은 민간 관광업체들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관광서비스산업의 가치사슬망의 구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의 주요 실크로드 및 철도 관광 업체 등 민간 추진 기구가 구축되어 관광상품 기획 및 운영에 대한 협력적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론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U, ASEAN,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의체(CAREC),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등과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협정(가칭)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4. 요약 및 결론

현 정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제시한 DMZ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통한 공영, 평화, 창조의 모티브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현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을 제시하였다. 즉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유럽과 한반도의 연결고리를 관광산업으로 연결하는 창조의 전략이며, 기존의 연결망을 활용하여 관광경로상의 모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공영의 전략이다. 무엇보다 유라시아 국가들의 지지 아래 북한과의 화해모드 및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 계기가 될 평화적 전략이 된다. 그리고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기존 비연속적 유라시아-한반도의 교류·경제 노선에 있어 유기적이며 다각화된 방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북방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유럽 및 아시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세계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며, 신 실크로드 관광경로를 통해 올림픽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직접 유인을 통해 북한의 관광노선에 일조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의 그뤼네스 반트-유라시아-한반도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생태·평화밸트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의 통로의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창조관광형 유라시안 신 실크로드 개발은 남북협력의 통로인 DMZ를 평화·생태적으로 활용하고 DMZ세계평화공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주요한 대한이 되며, 남북 관광의 성장, 나아가 아시아, 유럽에 이르는 공생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나희승, 2014, 남북·유라시아 철도사업의 의의 및 협력과제, KDI 북한경제리뷰, 2014(2), 20-34.

송기헌, 2009, 관광루트로서의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 호텔관광연구, 11(1), 32-43.

서종원, 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월간교통, 2(192), 44-47.

성원용, 201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국제운송회랑의 지정학, 월간교통, 01(191), 6-13.

신윤숙, 2001, 유라시아 횡단철도 연결에 따른 철도여행의 관광상품화 전망, 문화관광연구, 3(2), 109-133.

심상진, 2007, 남북관광이 국내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정책, 2014(30), 38-42.

이재훈, 2014,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 철도망구축과 정책과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연결방안 세미나 자료집.

이효진, 김영선, 이장규, 2014, 중국의 신실크로드 경제원 추진 동향과 전망, 지역경제포커스, 8(45), 1-13

조규진, 2004, 대륙실크로드와 비교한 유라시아횡단철도의 의미, 마케팅, 2004(10), 69-74.

조동호, 2013,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모델:DMZ 패키지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13(20).

조찬성, 2014, 최근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이 주는 시사점, 한반도현안톺아보기, 3(3), 1-16.

주풍, 2006, 남북철도를 활용한 대북 관광산업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범희, 허남균, 허희영, 2008, 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21(2), 137-170.

함범희, 박원근, 박영재, 2003, 동북아시아 유럽간 물적 유통경로 전략에 관한 연구-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go.kr/

교신 : 김창환,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 033-250-6695, 팩스 : 033-259-5597, 이메일 : hillskim@kangwon.ac.kr

Correspondence : Chang-Hwan Kim, adress, Department of Educational Geograph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 University Road, Chuncheon-si,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6695, Fax: +82-33-259-5597, e-mail: hillskim@kangwon.ac.kr

DMZ HELP 센터정관

제1조(명칭) 이 센터는 강원대학교 부설 DMZ HELP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센터는 건강(Health), 환경(Environment), 생명(Life)과 평화(Peace)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DMZ와 그 인접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학문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이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통일의 초석인 DMZ에 기초한 지역간 통일 선도
2. 국내 유일의 DMZ 종합연구기관으로서 'DMZ학' 창출
3. 국내외 DMZ 관련 사업 네트워크 허브 육성

② 이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DMZ 정책연구
2.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DMZ 미래에 관한 연구
3. DMZ 컨텐츠개발 사업
4. DMZ 포럼운영 사업
5. DMZ 분야별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사업
6. DMZ 관련 사업들의 평가·관리·운영사업
7.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이 센터에는 운영위원회, 연구협력실, 사무국을 둔다.

제5조(임원)

① 이 센터의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연구협력실에는 실장,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 운영관련 제반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센터기본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센터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연구협력실)
① 연구협력실에는 연구협력실장,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기준은 센터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연구협력실의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임명하며, 책임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협력실은 연구사업과 평가관리사업 등을 담당한다.

제8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회계 및 행정실무 등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기능 강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센터보유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
4. 기타 센터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9조(수입) 이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대학지원금
2. 정부의 DMZ관련 지원금
3. DMZ관련 기관 또는 산업체의 연구용역비 및 기부금
4. 기타수입금

제10조(회계관직) 이 센터는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센터계약관 및 출납관을 두며, 계약관은 센터장이, 출납관은 사무국장이 된다.

제11조(예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세칙)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DMZ 투고규정

2007년 3월 1일 제정
2012년 11월 22일 개정

1. 본 연구소의 논문집 「DMZ」(이하 '논문집'으로 칭함)에는 연구논문(Research Articles), 단보(Note) 및 총설(Reviews)로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발표예정이 없는 것을 게재하며, 원고의 종별은 저자가 원고표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2. 원고는 '한글(HWP)'을 사용하여 1단으로 작성(글자크기 : 10)한다.

3. 사용용어는 학회 또는 과학기술처 제정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국문의 고유명사를 영어로 표기할 경우 교육부 84년도안(http://www.hangeul.or.kr/24.htm)을 따른다.

4. 표지에서 제목 및 저자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반복하여 표기하되, 주저자(first author)를 제일 먼저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기관은 해당저자의 이름 오른쪽 괄호 안에 기관명과 직위명을 표기한다. 교신저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은 원고의 말미에 참고문헌에 이어서 기입한다. 또한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인 경우는 제목의 오른쪽 상단에 *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5. 원고 작성은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국문으로 적고 이어서 영문으로 반복한 후, 국문요약, 영문 ABSTRACT, 본문<서론(또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영문으로 적고 이어서 국문으로 반복한 후, ABSTRACT, 국문요약, 본문<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또는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APPENDIX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속보, 총설 등은 저자의 편의상 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6. 주요어(KEYWORDS)는 7개 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요약 다음에 중고딕체(예 : 지리정보)로, 영문 ABSTRACT 다음에 *이탤릭체(예 : Geohraphic Information System)*로 표기하되 학명은 고딕으로 표기한다.

7. 표(TABLE)와 그림(FIGURE)의 제목 및 설명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통일되어야 하며, 일련번호와 함께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은 그림의 하단에 나타내고, 별지에 제작된 경우는 본문에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8. 사진, 그림 등은 가급적 JPG, TIFF, Photoshop format 등으로 지정하되, 출력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자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다 사진으로 제출할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9. 도량형의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숫자와 도량형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단, 관례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온도나 % 등은 숫자에 붙여 사용한다.

10. 참고문헌(REFERENCES)에는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을 표기하며, 쪽수 등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입 순서는 국내, 국외문헌의 순으로 하되, 맨 앞의 저자명에 의해 국문이나 동양문헌은 한글발음의 가나다 순으로, 그 외는 알파벳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학회지 등의 일반논문

김철민·이준우·권태호, 1995, 수치고도모델을 이용한 오대산 국립공원지역의 지형분석, 환경생태학회지 9(1), pp.70-76.

Tucker, A.M. and R.T. Williams. 1993a. Spectral characteristics of upland pine forest measured from LANDSAT-6 TM simulated imagery.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63(7):pp.935-947.

Tucker, A.M. and R.T. Williams. 1993b. Development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LANDSAT TM data.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63(11):pp.1235-1247.

나. 심포지움 논문집 또는 학술발표회 초록집

박문수, 1999, 산지이용계획 수립과정에서의 GIS 활용방안, 제4차 한국지리정보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 초록집, pp.18-24.

Paris, J.F. 1983. On the use of polarized radar measurements for vegetation studi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San Francisco, CA, Aug. 31-Sep. 2, 1983. Vol. 2, pp.51-54.

다. 학위논문, 단행본 또는 보고서

이승호, 1992, LANDSAT 화상자료를 이용한 산림식피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04.

Lauer, G.J. 1993. *The bottom fauna of two saline lakes in the Grand Coulee*. Ph.D. Thesis, Univ. of Washington, Seattele, USA. p.188.

Ulaby, F.T., R.K. Moore and A.K. Fung. 1926. *Microwave Remote Sensing*, Artech House, Norwood, MA, USA. p.330.

Bye, J.A.T. 1990.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 techniques*. Flinders Institute for Atmospheric and Marine Sciences Research Report 34, Bedford Park, Australia. p.17.

라. 단행본 또는 보고서의 장, 절

홍길동, 1997, 임도계획기법(산림토목환경연구회편, '산림공학', pp.182-210). 광일문화사, 서울.

Moore, I.D. 1996. Hydrologic modeling and GIS. In: M.F. Goodchild et al.(ed.). *GIS and Environmental Modeling: Progress and Research Issues*. GIS World Books. Fort Collins, CO, USA, pp.143-148.

마. 미발표 자료나 사신 또는 인쇄중인 책이나 논문

Doe, J.M. *Iowa college of Agriculture*. Ames, Iowa(unpublished data).

Blaker, A.A.(In press) *Handbook for Scientific Photography*. Springer-Verlag, Berlin.

바. 보고서나 Proceeding, 논문집 등에서 저자명이 따로 없는 경우는 발행단체 도는 발행기관을 저자명으로 할 수 있다.

산림청. 1994. 산림환경정보시스템 구축방안 기본계획수립. p.233.

HRS. 1988. *Technical and economic overview of aquaclture*. HRS Annual Report. Wallkingford, U.K., pp. 16-20.

11. 본문 중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국내저자의 경우는 성과 이름을, 국외저자의 경우 성만을 적되, 저자수에 따라 (홍길동, 1997), (홍길동·박문수, 1997), (홍길동 등, 1997) 이나 (Herrington, 1997), (Tucker and Williams, 1997), (Likens et al, 1997) 또는 (高木 등 1997) 등의 방법으로 표기하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1997; 高木 등, 1997; Tucker and Williams, 1997) 등으로 표기한다.

12. 논문을 투고할 때는 원고 파일(출력된 원고인 경우 4부)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최종 수정 본 파일을 제출한다. 제출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3. 원고의 심사는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규정에 의하며, 원고의 교정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4. 논문집은 연 1회(3월 마지막 날)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와 편집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로 문의한다.

「DMZ」 편집 및 출판 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DMZ HELP 센터' (이하 '센터'라 칭함)의 회칙에 의해 발간하는 연구소 논문집「DMZ」(이하 '「DMZ」'이라 칭함)와 본 학회에서 출판하는 모든 출판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DMZ」의 발간 목적) 「DMZ」은 다양한 지리학분야에서 접근된 경험적 지역연구 논문과 여행 및 학술답사에 의한 답사기, 특보, 여행기, 칼럼 등을 편집·출판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집 및 출판사업의 운영) 「DMZ」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 센터 정관에 따라 센터 산하에 조직된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장 「DMZ」 발간 및 배포

제4조(발간 회수) 「DMZ」은 년 2회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제5조(발간일) 「DMZ」은 매 년 6월, 12월 마지막날에 2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배포양식) 「DMZ」은 본 센터에 가입한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제7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DMZ」를 비롯하여 본 센터에서 출판하는 모든 출판물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편집위원의 자격) 지리학 및 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다.

1)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2) DMZ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연구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3) 정부, 국회 및 기타 유관정책기관에서 상위실무를 담당하는 자
4) 기타 관련 분야에서 연구 활동 능력이 탁월 자

제10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1) 본 편집위원은 기존의 편집위원들로 구성하고, 이후 위원의 교체 및 증·감원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센터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며,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업무를 주관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정기 및 임시회의)

1) 본 위원회는 「DMZ」편집 및 출판에 관한 기획을 위하여 연 1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기타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제13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2/3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고문 및 간사) 본 위원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실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원고의 투고 및 심사

제15조(원고의 구성 및 투고 자격)

1) 「DMZ」는 본 위원회에서 기획하며 청탁한 원고와 본 센터 회원이 투고한 원고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센터 비회원이 「DMZ」출판의 목적에 부합되는 원고를 투고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원고의 심사와 게재확정) 서평을 제외한 모든 원고는 본 위원회에서 선임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를 근거로 본 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제17조(투고 및 심사에 관한 세부규정) 원고의 투고자격, 원고의 종류, 원고의 분량, 심사과정, 심사기준, 심사료, 수정요구, 원고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DMZ」투고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비규정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DMZ」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은 통상관례를 기준으로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정한다.

제19조(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MZ」 논문 심사규정

2012년 1월 1일 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1. 이 규정은 DMZ HELP센터의 논문집「DMZ」(이하 「DMZ」이라 칭함)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에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분야를 구분한 후, 편집위원 3인 이상의 협의를 거쳐 관련분야 전문가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게재가능,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로 도출하며, 상세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최종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인 중 다수의 심사결과에 따르되, 심사위원 1인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할 시에는 추가로 2인의 심사위원을 더 위촉하여 재심사를 의뢰하고, 투고자는 이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2) 수정게재로 판정된 경우의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경우의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결과보완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는 이에 따른 추가 심사료를 부담한다.
   4) 게재불가로 판정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즉시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판정을 통보하고, 게재료를 반환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논문 게재에 대한 최종확정은 편집위원회가 하며, 심사자와 투고자는 논문 게재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확정에 이의 제기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는 수정게재나 게재가능 판정을 받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센터장 명의의 논문게재확정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DMZ 제5권

발 행 : 2014. 12. 31
발 행 인 : 김 창 환
편 집 인 : 정 성 훈
발 행 처 : 강원대학교 DMZ HELP 센터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교육2호관 311호
전화 : 033-250-6699 팩스 : 033-259-5597
E-mail : hillskim@kangwon.ac.kr
Homepage : http://www.dmzhelp.or.kr
조판·인쇄 : 출판기획 형

DMZ

2014 / 12 vol.05

Paper

A Study on the Spatial Location Selection of Korea DMZ World Eco-Peace Park ····· Jeong Hae-Yong·KIM Chang-Hwan

A Study on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of social economy in the border region of Gangwon Province ····· LEE Hongtaek·JUNG Sung-Ho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for the Eurasian New Silkroad and the Korea DMZ Eco-Peace Park ····· KIM Chang-Hwa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MZ HELP CENTER